

러시아산(알타이)의 녹용

한의약업소에서 가장 고가에 거래된다는 러시아 녹용. 러시아 녹용의 90%를 생산하는 고르노 알타이 공화국에서 녹용을 수입하는 업자들은 이들 녹용을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소개한다. 일부 내용들은 매우 과장돼 있음을 알 수 있다. <편집자 주>

한국 한의학의 구심점이라고 할 수 있는 허준 선생의 동의보감과 더불어 400여년의 긴 역사 속에 보약의 대명사로 일컬어지는 녹용과 인삼.

오랫동안 한국인들의 마음속에 보약으로 자리잡게된 시베리아산(러시아)녹용은 그 효능이 탁월하여 현재에 이르러서도 한국의 모든 한방기관과 한의원에서 그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북부지역과 알타이 산맥의 몽골고원, 남부 시베리아 일대의 고산지대와 울창한 삼림지대에서 큰 어려움 없이 구입할 수 있었던 조선시대와는 달리 20세기 중반이후 동서로 양분된 냉전된 세계사의 변천과 흐름에 따라 한동안은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지에서 제3자 교역을 통한 어려운 구매여건에도 불구하고 애용된 것은 시베리아산(러시아)녹용의 탁월한 효능과 효과 때문에 오늘날의 자유로운 거래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특히 한국과 러시아의 왕래가 남북으로 이어진 우랄 산맥 줄기의 광활한 고원지대인 『고르노 알타이 공화국』에서 전혀 오염되지 않은 청정한 천혜의 자연과 만년설이 공유하고 있는 환경속에서 야생 상태로 방목되고 있는 사슴(마룩)에서 채취되는 시베리아산(러시아)녹용이야말로 타 지역에서 생산된 녹용보다 선호를 받고 있는 녹용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한반도의 남한 면적과 비슷한 『고르노 알타이 공화국』의 원주민은 한국인들의 체형과 생활관습, 언어 등이 비슷한 점 또한 녹용의 효능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필연적인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고르노는 우리말로 산지(山地)의 뜻>

이곳에는 약 20,000여 마리의 사슴들이 야생에 가깝게 방목되고 있는 농장 한 곳의 넓이가 한국의 일개 군보다 넓은 초지와 산악지역에서 신선한 풀과 나뭇잎, 약초를 주식으로 먹고 자라기 때문에 여름기간이 1년중 약 2개월밖에 되지 않고, 여름기간을 지나 동절기의 평균기온이 영하 30~40도를 오르내리는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강인한 체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의 녹용과는 달리 뿔이 크고, 세포가 조밀하며, 가지는 몸체를 포함 5가지로 형성되고 뿔가지는 항상 V자 모양을 가져 외관상으로 식별이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발 1,500m가 넘는 광활한 초지에서 야생 상태로 방목되고 있는 사슴들은 2월부터 새싹 자라듯 뿔이 자라기 시작하여 6월말과 7월초 사이에 뿔이 각질화되기 전 가장 왕성한 체력과 효능이 뛰어난 시기에 절단해서 인공건조가 아닌 청정지역에서 한국의 팔만대장경을 보관하듯 서늘하고 햇빛이 안드는 통풍이 잘된 건조장에서 약 3개월의 긴 기간동안 완전 건조시켜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

에서는 성장과 번식을 못시켜 모방을 못한 이유 또한 천혜의 자연환경과 기온, 사슴의 먹이 때문일 것입니다. (러시아 녹용을 인공건조가 아닌 자연건조 시킨다는 내용은 완전 허위 날조된 표현이다. 그리고 러시아 사슴을 타지역에서 성장과 번식을 못시킨다고 했는데 러시아는 구제역 발생지역으로 우리나라에 사슴을 들여올 수 없다. - 편집자 주)

끊임없는 개혁의 물결에 따라 러시아 경제가 대변하듯 타 지역 뉴질랜드, 캐나다와는 달리 많은 연구시설과 인위적인 녹용의 품질 관리 및 상업적인 전략차원을 떠나 한국고유의 신토불이 정신을 이어받아 자연 그대로의 신선하고 우수한 녹용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한국과 고르노 알타이 공화국의 무역인들이 대 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경동 약령시대 축제』 때 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위하여 자치정부의 총리 및 다수 인원의 정부관료 사절단들이 참가, 시베리아산(러시아) 녹용의 우

수성과 한국과 『고르노 알타이 공화국』과의 친선 교류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킬 예정입니다.

한국인의 오랜 정서에 시베리아산(러시아) 녹용의 우수한 효능이 배어있듯 과학적인 실험방법과 연구의 결과보다는 어렸기간동안 그 효능을 받고 애용해주신 한방의료기관과 한의원, 한의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한번 뜨거운 감사를 드리며 추후로도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그 품질의 우수함과 양질의 녹용생산을 지속시키기 위하여 매년 한정된 일정량만을 공급하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저희도 현시대의 흐름에 맞는 과학적인 생산 체계와 검역과정을 거쳐 『시베리아산(러시아)』 녹용의 품질개선과 효능검증에 노력할 것이며, 한국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색의 트랙

세 사람의 손

뉴욕의 지하철 플랫폼, 기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자 사람들은 플랫폼 가장자리로 다가섰다. 그곳에 네 살쯤 되어 보이는 가녀린 소녀가 엄마의 손을 연신 잡아당기며 플랫폼 가장자리로 좀더 다가서려고 야단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외마디 비명소리가 들렸다. 소리를 지른 사람은 그 소녀의 어머니였다. 그 아이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잡고 있던 어머니의 손에서 빠져나가면서 그 소녀가 15미터 아래에 기차가 달려오고 있는 철로 위로 곤두박질친 것이다.

사람들은 공포로 얼어붙어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지하철 내 경관만이 마구 팔을 흔들며 기관사에게 신호를 보내며 전철을 향해 달려갈 뿐이었다. 그 순간 플랫폼에서 있던 나는 갑자기 무엇에 이끌린 듯 플랫폼에서 훌쩍 뛰어내려 소녀를 향해 달려갔다. 있는 힘을 다해 날 듯이 달려갔지만 전철은 훨씬 더 빨리 다가오는 듯했다. 재빨리 손을 아래로 뻗어 그 애의 팔을 움켜잡았다. 그리고는 그 애를 잡아 올려 플랫폼 쪽으로 던져 올렸다. 나는 그 애가 플랫폼 가장자리에서 있던 한 젊은이의 품에 안기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는 나도 플랫폼 언저리에 손을 얹고 뛰어오르려고 했다. 그런데 그만 가장자리에 가슴이 부딪혀서 철로 위로 다시 떨어졌다. 그때는 전철이 바로 내 얼굴 앞에 와 있었다. 두려움에 두 눈을 질끈 감았다.

그런데 갑자기 내가 철로에서 들어 올려지기 시작했다. 마치 천사가 나를 드는 것처럼 세 사람이 플랫폼에 엮드려 내 윗도리를 잡아 위로 당기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그들은 어린 소녀를 받아 안았던 젊은이, 경관, 그리고 내 생각엔 그들 중 가장 센 힘으로 나를 잡아당겼음이 분명한 그 소녀의 어머니였다.

<가이드 포스트>, 1999년 8월호에서